

전국 베트남 불자 모여 佛心으로 '힐링'

삼광사 4월 4일~5일 정진대법회 봉행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를 위해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힐링 사찰 삼광사(주지 무원)가 전국 베트남 불자들을 위한 특별 정진 대법회를 개최했다.

'땀담코나우(Dung Lam Kho Nau)-서로 힘들게 만들지 마시다.'라는 주제로 4월 4일~5일 삼광사 지관전서 열린 이번 법회에는 전국에 있는 결혼이민여성, 산업연수생 등 베트남 불자 7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법회에서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의 법문 및 걷기 명상, 기도 정진 법회 등이 진행돼 베트남 불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제가 불자들을 비롯해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마음의 힘을 잘 사용하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게 된다. 이번 공부를 기회 삼아 주변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법회에서는 베트남 비엠헤우 사찰의 주지 티키펀안 스님과 핀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엔 탐 사찰 주지 티한바오 스님 등 베트남 불자들에게 정신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스님들이 초대돼 눈길을 끌었다. 티한바오 스님은 "주지 무원 스님께서



삼광사가 전국 베트남 불자들을 위한 특별 정진 대법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은 걷기 명상 장면, 오른쪽은 베트남 불자들이 스님들에게 3배를 올리는 장면.

티키펀안·티한바오 스님 초청 서울 대구 등지서 700여 명 몰려 월1회 법회... 1년에 두 번 대법회

흔쾌히 초청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법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사랑과 자비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번 법회를 통해 계정해를 닦아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베트남 불자 모임을 이끌고 있는 막티훤(35)씨는 "베트남에서 법문을 하면 2만명이 넘는 불자들이 모임 정도로 유

명한 스님들인데 이렇게 한국에서 쉽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준 삼광사에 감사드립니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법회에서는 서울, 광주, 대구, 경주 등 전국 각지에 흩어진 베트남 불자들이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공유한 정보로 700여 베트남 불자들이 모인 점도 눈길을 끈다. 대구에서 온 노티탐(27)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면 많이 외롭고 힘이 드는데 5년 만에 법회를 통해 도반들을 만났다. 이번 법회에 참석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석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삼광사는 한국의 베트남 불자들

과 연계해 회인 관리 및 연락망을 새롭게 구축하고 조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달 1회 정기 법회를 열고 일 년에 두 차례씩 대법회를 봉행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 포교를 위해 세계 음식 문화 축제 및 다문화 가족 이해하기 세미나, 다문화 가정 어린이 뮤지컬 공연 팀 구성 등의 기존 프로그램도 꾸준히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봉축 때는 특별히 통역도 배치해 외국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스님 및 재가불자들은 5박 6일 동안 삼광사 극락전에 머무르며 삼광사 힐링문화열차 탐방 및 삼광사 정기법회 등에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연등축제조직위 봉축 일정 발표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2015 슬로건으로 확정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 2015년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이하 연등축제조직위)는 4월 4일 삼광사 금강불교대학 강 의실에서 '부산연등축제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사무총장 심삼 스님 및 구군불교연합회, 신행단체 대표, 재부총단대표, 구군연합신도회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연등축제조직위는 "부산연등축제 슬로건을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으로 내걸고 장엄등 전시 일정은 5월 11일~17일에서 5월 1일~17일로 확대 변경했다. 장소는 기존 전시장인 용두산 공원의 공사 관계로 부산시민공원 송상현 광장으로

변경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거리등도 2000개에서 3000개로 추가된다. 봉축답과 장엄등 수도 대폭 늘어나 축제의 열기를 뜨겁게 달궈 예정이다. 전통 창작등 공모대전 및 전시는 일정도 발표했다. 4월 29일~30일 연등축제 위원회로 작품을 출품하며, 5월 1일~17일 전시를 거쳐 17일 시상식도 갖는다.

2015년 부산연등축제의 주된 무대 및 전시 장소는 부산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구덕운동장, 광복로이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은 "불자뿐 아니라 부산시민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전통 축제로 발전시켜나가자"고 당부했다. (051)867-0501

하성미 기자

부산 연등축제 일정

행사	날짜	장소	내용
개막점등식	5월 1일 오후 7시	부산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장엄등 점등 및 '탑돌이 소원행사'
전통·창작등 공모대전 및 전시	출품 4월 29일~30일	연등축제위원회	전시 내용 • 우수작품, 봉축상징탑 등 • 연꽃등, 금강저등, 보살의화신등 50여점 • 전통복장을 한 어린이 등 • '영도다리'와 '자갈치시장'을 표현한 등
	전시 5월 1일~17일	부산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시상식 5월 17일	구덕운동장 봉축연합대회	
시민 행사	5월 1일~3일	송상현 광장 체협존	전통문화체험한미당
봉축연합대회 및 연등행렬	5월 17일 오후 4시	구덕운동장	봉축연합대회 '연등행렬' - 구덕종합운동장 출발 대청로, 국제시장, 광복로, 부산근대역사관 약 3km 구간 행진

대불련부산지부 제1회 금요일법회 개최

부산교수불자연합회(회장 정태권)와 대불련부산지부(회장 정연진)는 4월 3일 '제1회 대학생 매월 금요일법회'를 안국선원교육관에서 봉행했다.

'대학생 매월 금요일법회'는 포교를 위해 부산교수불자연합회에서 특별히 고안한 법회로 불자가 아닌 일반 대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

법회에는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정태권 교수, 전 회장 박영병 교수 및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등 10여 개의 불교 동아리 신입생 및 대불련 학생 70여명이 참석했다.

정태권 교수는 "그동안 대불련 포교할

등을 적극 지지해온 수불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청했다"며 "앞으로 부산 대학생 포교를 위해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내면을 통찰하여 지혜의 눈을 밝히면 세상이 더 잘 보이고, 삶이 풍요로워지며 판단력이 넓고 깊어진다. 불교의 가치에 눈뜨는 좋은 기회를 가지라"고 말했다.

법회에 처음 참석한 손현재(동의과학대 전기과·21)학생은 "교수님과 친구들의 권유로 가입했는데 법회를 하며 마음이 고요해짐을 느낀다. 좋은 경험이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교수불자연합회와 대불련부산지부는 '제1회 대학생 매월 금요일법회'를 열었다.

범어사 '3차원 정밀 측량' 업무 협약

범어사(주지 수불)와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는 4월 9일 범어사 주지실에서 '3차원 정밀측량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적공사는 세계 최고의 3D 스캐닝 장비 보유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UAV)로 취득한 영상을 공간 정보로 융합하고 종합화하는 기술력을 자랑한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적공사는 오는 7월말 까지 범어사 대웅전과 관음전, 삼층석탑,

일주문, 팔상전 등에 3차원 정밀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3차원 정밀측량 결과는 문화재의 관리와 복구, 안전진단 및 문화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범어사는 오래 된 역사성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 보유지로 그 중요도를 인정받아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부산지역에서는 처음 실시된다.

하성미 기자

해인사, 4월 27일~28일 팔만대장경 법회

해인사가 4월 27일~28일 '2015호국 팔만대장경 대법회'를 해인사 일대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55회를 맞는 이 행사는 4월 27일 전야법회에서 해인사 울주 인신 종진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장 원철 스님, 백담사 선원장 영진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4월 28일에는 '국운 융창, 남북통일, 법륜상전'을 발원하는 행진을 진행한다. 특히, 참석자들이 대장경 경판을 머리에 이

고 행진하는 모습은 대장경법회의 하이라이트로 일대 장관을 펼치게 된다.

해인사는 "자랑스러운 한국불교의 문화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지키고 인류의 평화 및 안정을 발원하는 법회다. 또한 사부대중의 수행 원력과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진정한 호국, 호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법회가 될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부산 파라마타, '새학기 새 각오로 출발'

4월 4일 범어사에서 발대식

부산파라마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는 4월 4일 범어사 설립전에서 금정중, 해동중 등 20여 학교 500여 학생이 모여 '신입회원 환영회 및 발대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파라마타청소년협회 총재 수불 스님, 부산 파라마타청소년협회 백명숙 협회장, 부산파라마타청소년협회 김석조 前 협회장을 비롯해 지도범사 및 학교 지도교사들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 날 행사는 개회선언, 신입생 선서, 재학생 환영사, 위촉장 수여, 장학금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신입생들은 선서를 통해 민족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여 참된 인간행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백명숙 회장은 "올해는 부산파라마타가 탄생한지 19년으로 성년을 맞는 나이이다.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파라마타 활동을 통해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밝은 생각, 밝



부산 파라마타 청소년 협회 '신입회원 환영회 및 발대식'

은 행동으로 삶의 질을 높여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석조 前협회장은 23명 학생에게 500여만원의 장학금을 회사하고 격려했다. 발대식 후 참가자들은 범어사에서 마련한 상설무대에서 다도와 단청 체험, 초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한해 동안 부산파라마타청소년 협회는 전국 규모의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대회', 문화제지킴이 활동, 해외문화탐방,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보련 기획

✓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 다량 주문시 할인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 만 월 등 |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 공 단 등 |



| 황 금 등 |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BORYEON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